

기괴한 ~ 에이 고딕 서사시

GE 그레이븐 지음



제 17 장



마치 싸우는 천사들처럼, 별들은 서쪽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다른 별들은 떠올랐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추격했다. 그들 사이에는 수많은 별자리가 펼쳐져 있었다. 신성한 거대한 형체들이 칠혹 같은 하늘을 가로질러 솟아올랐고, 오리온자리의 검 같은 별빛 아래, 한 쌍의 날개가 밤하늘을 지배했다. 바람의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나사로는 하늘과 땅 사이를 지나 프랑스 시골 상공 높이 날아올라, 앞으로, 위로, 그리고 깊은 황혼 속으로 나아갔다.

광활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의 발아래로 펼쳐졌다. 수많은 숲과 들판, 언덕과 계곡, 시냇물과 강이 어우러져 있었다. 온 세상이 그의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도 동쪽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도사를 모셔오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제에게 했던 기사의 엄숙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의 굳은 결심 또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은 더 이상 그의 접근을 반기지 않았다. 동쪽 지평선에 붉은색의 얇은 선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새벽빛을 예고했다. 라자로는 하늘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자신이 찾던 지형지물을 발견했다. 멀리, 나무 꼭대기가 우거진 계곡 사이로 넓고 구불구불한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루아르 강이었다.

그는 수도원 지도를 여러 장 살펴보고 그것의 모습과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강 계곡 한가운데로 몸을 숨기고 숲의 나뭇가지들을 향해 기총소사를 했다. 강을 건너 숲을 지나, 그는 급격하게 기수를 돌려 더욱 낮은 후, 거센 물살이 몰아치는 수면 바로 위에서 수평 비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깊은 그림자 속에서 계곡에서 나사로는 검은 동맥을 따라 레온 만으로 향했다.

날개 속에서 그는 강 계곡을 감싼 차가운 공기로부터 새로운 한기를 느꼈다. 축축한 공기는 늪지대와 같은 악취로 가득 차 있었다. 썩은 잡초, 썩은 나무, 고인 진흙탕, 버섯,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물에 젖은 물고기 냄새가 뒤섞여 최근 비가 내렸음을 알려주었다. 라자로는 다가오는 태양을 피해 강 동쪽 독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질퍽한 강둑은 마치 침식된 어깨처럼 보였고, 그 위로 나무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많은 나무들이 생명력을 잃고 기울어져 있었고, 어떤 나무들은 마치 다리를 뺀 듯 뿌리를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 사이사이에는 축축한 동물 굴만 보였다. 동이 트고 있었지만 마땅한 피난처가 보이지 않자,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라자로는 강굽이를 돌아 서쪽 독에 있는 지류를 유심히 살폈다. 좁은 물줄기가 루아르 강에서 갈라져 나와 어둠에 휩싸여 얽히고 설킨 덤불의 장막 뒤에 거의 가려져 있었다. 그는 급히 차를 몰아 강을 건넜다. 강물은 덤불을 헤치고 진흙탕 물줄기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고, 그는 뒤틀린 나뭇가지와 쓰러진 나무줄기를 피해 나아갔다. 그의 발아래, 고여 있는 개울물은 검은 거울 같았고, 마치 시간을 재는 듯했다. 그 표면에는 나무 꼭대기의 실루엣이 비쳐 보였는데, 하늘의 붉은 빛이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나무들은 검게 팔을 뻗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었다. 태양은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라자로는 굳은 결심과 돌처럼 단단한 의지로 지옥 같은 황무지 속으로 더욱 깊이 나아갔다.

좁은 물줄기는 마치 뒤틀린 나무 가지처럼 황야를 구불구불하게 가로질렀고, 그 강둑은 잡초로 뒤덮인 여러 갈래의 개울과 뒤엉켜 기형적으로 얽혀 있었다. 만입구와 이끼로 뒤덮인 구멍들이 있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강둑은 저지대로 이어졌고, 사방이 완전히 물에 잠겨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수로가 있었는데, 숲은 마치 검은 유리판에서 솟아난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라자로는 새벽의 치명적인 빛과 그에 못지않게 강렬한 수면의 반영 때문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완전히 빛과 어둠 사이에 갇혀, 뻘뻘한 숲 속을 날아다니며 물 위를 맴돌고 있었다.

깊이가 무한히 깊었다. 그러나 그는 나무들이 없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다. 자라면서, 스스로 개울의 본래 흐름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는 물에 잠긴 숲 속을 헤쳐 나갔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마치 뒤틀리고 떨리는 검은 벽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마침내 하늘과 물은 진홍색으로 물들어 마치 서로 마주 보는 핏빛 바다처럼 보였다. 그의 날개에 감돌던 한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얼굴은 마치 뜨거운 바람에 노출된 듯 화끈거렸다. 라자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바라던 것을 발견했다. 개울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진흙투성이었던 개울의 어깨가 물 위로 솟아오르더니, 더 멀리 갈수록 한때 물에 잠겨 있던 곳에서 솟아올라 더욱 뚜렷한 윤곽을 보여주었다. 더 넓고 곧고 굳건한 자태를 뽐내며 뻗어 나갔다. 물에 잠겼던 저지대가 물러가자, 이전의 진흙투성이 개울은 골짜기로, 시냇물로, 그리고 마침내 강으로 변모하여 숲의 경계를 뒤로 밀어냈다. 어두컴컴한 늪지대 나무들은 키가 크고 축 늘어진 강풀들 뒤로 물러났고, 풀들 사이사이에는 더욱 높이 솟은 줄기들이 하늘을 향해 부풀어 오른 회색 깃털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물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곧고 좁은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갔다.

그때, 강 북쪽 독에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그것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 나사로는 그것을 지나쳤지만, 물 위를 크게 선회한 후 젖은 독의 잡초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지친 날개를 접고 발꿈치에 기대어 앉아, 타오르는 듯한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더욱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무릎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코끝에는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강가로 시선을 돌려 해진 어망 하나를 발견했다. 어망은 부분적으로 물에 떠 있었고, 나머지는 진흙탕 강둑에 잠겨 있었다. 물속, 어망 아래에 갇힌 채 라자로는 작은 소녀의 머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입을 벌린 채 졸린 눈으로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수천 마리의 작은 벌레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듯, 소녀의 흘날리는 머리카락은 파도에 따라 흔들렸고, 마치 움직이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듯한 초현실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를 놀리는 것뿐이었다. 부서진 인형의 머리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근처, 덩불로 뒤덮인 강둑에 그는 물에 젖어 갈라진 배의 잔해가 해안선에 납작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흙과 잡초 아래에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라자로는 일어서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거운 남자의 부츠 자국과 일치하는 듯한 물웅덩이들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은 놀린 잡초 사이로 그 자국들을 따라가며 그쪽으로 향했다.

견고한 석조 건물의 모서리에 널빤지 문이 하나 붙어 있었다.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버려진 듯 보였다. 건물은 생기 넘치는 덩굴과 무성한 어린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숲에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삼켜져 가는 희생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건물의 외관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외벽 윗부분에는 썩은 나무 기둥 두 줄이 갈라졌지만 여전히 견고한 외벽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튀어나온 기둥 아래에는 직사각형 모양의 변색된 자국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전에 창문이 있었음을 암시하며, 지금은 새로운 돌로 막혀 있는 듯했다. 엉망진창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그 건물은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축복받은 성소처럼 보였다. 그는 붉은 하늘을 바라보고, 발자국을 살펴보고, 왜 하늘을 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피해 숨어야 하는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했다.

“저 안이 비어 있나요?” 나사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잡초를 헤치고 소리쳤다. 문을 두드렸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귀를 쫓긋 세우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살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주변 덤불에서 귀뚜라미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놀란 거북이가 물에 뛰어드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자루스는 손을 문에 대고 살짝 열어젖힌 후 큰 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거미 한 마리가 안에서 황급히 도망쳐 나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칠흑같이 어두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곳인가요?”

순식간에 라자로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이 막힐 듯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역겨운 악취에 질식할 것 같은 기분으로 문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토할 것 같은 구역질을 참으며 잡초 속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그러다 다시 몸을 돌려 문을 살펴보았다. 건물의 벌어진 입구에서 파리 떼가 쏟아져 나와 그에게 달려들었다. 파리들은 마치 웅웅거리는 후광처럼 그의 머리 주위를 기묘하고 신비로운 형태로 맴돌았다. 라자로는 뺨을 때렸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동쪽을 응시하며, 삼나무의 짙은 틈새로 숲의 나뭇가지 위쪽으로 첫 햇살이 비치는 것을 발견했다.

상류로 올라가 보니 진흙투성이 강둑과 덤불 만 보일 뿐, 다른 피난처는 없었다. 피부를 타고 흐르는 따스한 열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그는 마치 숨을 내쉬는 듯한, 조롱하듯 활짝 벌어진 건물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끊임없이 역겨운 숨소리가 새어 나왔는데, 마치 죽어가는 개의 고약한 숨소리 같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어깨를 뒤로 젖힌 채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라자로는 냄새와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문을 닫았다.

그는 손으로 코를 가리고 닫힌 문에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잠시 동안 그의 눈동자가 어둠의 겹겹을 걷어내고 그 안의 모습들, 즉 돌바닥, 탁자 같은 것, 또 다른 탁자, 그리고 또 다른 문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의 눈에서는 악취가 흘러내렸다. 그 악취는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게 주변을 뒤덮은 듯했고, 마치 지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처럼 그의 눈을 따갑게 했다. 끊임없이 어지는 탁탁거리는 소리와 웅웅거리는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다.

건물이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듯한 바닥과 벽에 시선을 집중했다. 그것은 그의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바닥과 벽의 표면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파리와 바퀴벌레 떼가 마치 온통 뒤덮인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끓어오르는 듯한 어둠 속에서 건물의 윤곽이 점점 더 드러났다. 머리 위로는 휘어진 나무 서까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더 높은 천장 아래 매달린, 속이 텅 빈 거대한 갈비뼈처럼 보였다. 수많은 밧줄과 사슬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었고, 끝에는 온갖 금속 갈고리와 미늘이 달려 있었다. 그 위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웅크리거나 납작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고기 위에는 수많은 파리들이 쪼그라든 눈알 위에서 날뛰고 있었다.

라자로는 축 늘어진 사슬을 헤치며 생선 창고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슬이 그의 뒤를 따라 덜컹거렸다. 그는 창고 한가운데에 마치 섬처럼 자리 잡은 직사각형 나무 탁자 옆에 멈춰 섰다. 투박한 탁자의 표면 전체는 마치 칼날에 여러 번 찍히고 굽힌 듯 깊은 선형 자국과 불규칙하게 겹쳐진 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얼룩지고 움푹 패인 탁자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본 후 다시 창고 벽을 살펴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수도원 지하 묘지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햇불 거치대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입구 쪽으로 돌아서서 그 옆 벽에 기대어 놓인 키 큰 양동이 를 보았다. 그 안에는 거꾸로 된 나무 햇불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그 양동이는 뚜껑이 있는 작은 양동이였는데, 아마도 햇불에 연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기름 증류기였을 것이다.

그는 몸을 돌려 건물 가장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았다. 웅크린 생선 사체들을 지나 뒷벽을 바라보니 긴 작업대가 벽 전체를 덮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가죽 벗기는 도구, 딱딱하게 굳은 생선 머리, 소금 덩어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작업대 아래 바닥에는 가지런히 접힌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가운과 드레스였는데, 쥐똥으로 뒤덮여 있었다. 맨 위에 있는 옷들은 최근에 접은 듯했지만, 더 아래쪽, 벽에 가장 가까운 옷들은 그렇지 않았다.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은 심하게 낡아 있었다. 옷 더미 옆 작업대 아래에는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새 신발도 있었고, 낡은 신발도 있었으며, 쥐 같은 설치류가 구멍을 낸 듯 해진 신발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발들은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초현실적이고, 심지어 섬뜩하게 느껴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사로가 탁자 밑면에서 가장 초자연적이라고 느낀 것은 아마도 탁자 다리 사이에서 극도의 질서와 부패가 바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자로는 얼굴에 붙은 파리를 쳐내고 헛구역질을 하며 작업대를 치워버렸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역겨운 냄새를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냄새는 피부에 달라붙어 숨을 멎게 하는 종류였는데, 누구든 목구멍이 뒤집힐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그 지독한 악취가 말린 생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을 살살이 뒤졌다.

습하고 더욱 끔찍한 근원. 그의 눈은 남쪽으로 향하는 파리 떼를 따라갔다.

벽을 따라, 붉은 금속 걸쇠가 달린 크고 낡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문 뒤에서 들려오는 일정한 웅웅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문틈으로 시선을 내려다보니, 마치 바쁜 벌집의 벌들처럼 수많은 곤충들이 오가고 있었다. 라자로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흄집 난 문 뒤에서 망쳐났어.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이반의 단호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그는 금지된 베니온 터널에 대해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었다. '절대, 이 터널은 안 돼, 라자루스. 다른 모든 지하 묘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이 터널만은 안 돼. 절대로.'

'바로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의 적나라한 진실은 어쩌면 짐승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만큼이나 야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큼 유혹을 자극하는 능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더 욱이, 어떤 짐승이 의지의 냉철한 규율을 따를 수 있겠는가?

무지란, 타오르는 호기심의 고통조차 외면할 수 없는 것일까? 나사로는 짤랑거리는 사슬을 지나 높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로는 모기 떼와 종잇장처럼 얇은 물고기 떼가 갈라지며 사라졌다. 그는 높은 문의 빗장을 풀고 활짝 열었다.

쿵! 쿵쿵쿵! 나사로는 재빨리 옆으로 뛰어내리며 바닥에 굴러떨어진 머리를 향해 쇠 소리를 냈다. 갑자기 그 뒤편 열린 문틈에서 곤충 떼가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나와 마치 수백만 마리의 작은 천사들이 풀려난 듯 천장으로 솟구쳐 올랐다. 여자의 머리는 멍한 눈으로 나사로를 올려다보며 흔들렸고, 목에서는 애벌레들이 크림처럼 엉겨 붙어 있었다. 나사로는 몸을 돌려 눈을 감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감각이 깨어나고 끔찍한 사건이 기억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그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과거의 모든 사건들처럼,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완벽한 기억력은 축복이자 저주였기에, 인생에서 겪었던 최악의 사건들조차도 세세한 부분까지 떠올리며 애쓰게 만들었다. 지금 이 순간, 크림처럼 엉겨 붙은 애벌레 더미도 마찬가지였다.

라자로는 모기에 목이 막혀 기침을 했다. 그는 크고 낡은 문으로 몸을 돌려 가까이 다가갔다. 열린 문틈으로 보니 남쪽 벽 전체를 차지하는 듯한 폭은 넓지만 깊이는 얇은 방이 있었다. 이곳이 생선 창고라는 것을 알고 있던 라자로는 그 방이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시킨 생선을 보관하는 위생적인 공간으로 쓰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좁은 방은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듯했다. 방 안의 내용물이 건물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이다.

문이 열리자 라자로는 방 바닥에 알몸에 목이 잘린 시체들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50구도 넘는 시체들은 모두 여성의 것이었고,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시체들은 모두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목을 문 쪽으로 향한 채 일정한 형태로 누워 있었다. 마치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장작 더미나, 접은 옷가지 더미, 혹은 가지런히 늘어선 신발처럼 보였다. 옷가지처럼 시체들도 바닥으로 갈수록 부패가 심해져, 뚜렷한 신체 부위들이 검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맨 아래층은 마치 끓는 역청처럼 곤충들이 뒤엉켜 있는, 이음새 없는 층이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더미 위에는 졸린 눈을 한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인간이 처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악!” 라자로는 뒤로 달려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머리를 집어 다시 던져 넣었다.

그는 방을 나와 높은 문을 쿵 닫았다.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그는 생선 보관실 중앙에 놓인 탁자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다시 한번 더러운 보관실을 훑어 보다가 유혹적인 바깥 문에 시선이 멈췄다. 문 안쪽은 공기가 깨끗하고 바닥에 개미나 바퀴벌레가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턱 아래에서 새어 나오는 은은한 붉은빛 때문에 죽음이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마침내 새벽이 밝아왔다. 생선 보관실은 남은 시간 동안 그의 피난처가 될 터였다.

그날, 그는 부츠에 붙은 벌레들을 밟아 떼어내고 탁자 위로 올라가 잠시 서까래를 살펴본 후 그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는 서까래를 가로질러 걸터앉아 몸을 쪽 뺀어 그 위에 엎드렸다. 그는 그곳에 누워 하늘의 불타는 수레와 지옥의 벌레로 뒤덮인 바닥 으로부터 안전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 속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매달려 있던 나사로는 더 나은 곳으로 탈출했습니다.
꿈의 세계를 환영합니다.

~*~

쿵쿵쿵췌! 쿵쿵쿵췌! 라자로는 불안하고 부 자연스러운 소리에 몸을 일으켰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질척한 땅을 기어 다니며 무거운 앞발을 진흙에 광광 내리치고 힘없는 뒷다리를 질질 끄는 소리 같았다. 라자로는 발걸음 사이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를 듣고, 수도원 지하 묘지의 우물 구멍에서 타테우스 기사가 미겔 기사를 괴물이 공격했다고 믿었던 날을 떠올렸다. 라자로는 지금 듣는 소리가 마치 숨이 차고 상처 입은 바다 괴물이 해안에서 몸을 일으켜 마지막 썩어갈 곳을 찾으려 발버둥 치는 소리 같다고 생각했다.

라자로는 옆으로 몸을 굴리며 얼굴을 찡그렸고, 매달린 무게 때문에 가슴과 다리가 나무 기둥에 눌리는 곳을 문질렀다. 그는 일어나 기둥 위에 쪼그리고 앉아 바깥 문턱과 그 붉은 불빛을 응시했다.

한때 그가 기억했던 진홍빛은 이제 다른 색조, 죽어가는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까래의 지속적인 고통으로 보아, 새벽은 마침내 황혼으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밤하늘은 그의 것이 되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그러나 문턱의 희미한 불빛 사이로 지나가는 그림자들이 눈에 띄었다. 소음이 커져갔다. 그는 숨을 멈췄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만약 문틈으로 한 줄기 빛이라도 새어 들어온다면

쿵! 문이 활짝 열렸다. 햇살이 분수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들어와 문틈을 벌렸다.

바퀴벌레 떼가 소용돌이치는 바다 같았다. 곤충 떼가 그림자 속으로 물결치듯 밀려들어 왔다. 라자로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돌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를 악물고 마치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고 경계심에 가득 찬 그는 생선 창고 안으로 퍼져나가는 불길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질질 끌며 섹섹거리는 바다 괴물이 악취 나는 건물 내부를 죽기에 더 나은 장소로 여긴 듯했다. 그러나 짐승의 앞발로 땅을 쿵쿵거리는 듯한 소리는 곧 사람의 부츠가 돌바닥을 치는 더욱 분명한 소리로 바뀌었다. 문 경첩이 삐걱거리고 눈부신 햇빛이 희미해졌다. 라자로는 눈을 떴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생선 창고 안쪽에 등을 돌리고 거의 닫힌 문틈으로 엿보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수상쩍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장난꾸러기 같은 남자, 그는 안에 숨어서 밖을 엿망하고 있었다.

서까래 위 그림자 속에서 라자로는 침입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덩치가 꽤 큰 남자였는데, 기름진 검은 머리가 덩수룩했다. 크림색 로브 아랫부분에는 진흙 얼룩이 묻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라자로는 자신의 것과 비슷한 검은색 부츠 한 켤레가 진흙 덩어리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진흙 발자국이 부츠에서 방 중앙을 향해 이어져 있었다. 라자로는 흠집 난 탁자 쪽을 보고 나서야 전에 들었던 질질 끄는 소리의 원인을 알아차렸다. 바닥에 축 늘어진 가<binary data, 3 bytes> 끈 손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긴 탁자가 가려져 있어 라자로는 그 손 외에는 팔이나 몸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자세히 살펴보려다가 서까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까 봐 감히 시도하지 않았다.

마침내 남자는 문에서 살금살금 물러나 큰 양동이에서 햇불을 꺼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양동이 뚜껑을 열고 햇불에 기름을 적신 후, 햇불을 벽에 걸린 거치대에 끼우면서 어창 주변을 돌아다녔다. 부싯돌을 몇 번 튕기자 어창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햇불로 환해졌다. 그는 다시 바깥 문으로 돌아와 잠시 밖을 내다본 후, 투박한 빗장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몸을 돌려 뒷벽에 있는 작업대를 바라보았다. 작업대 위에는 옷과 신발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그는 손뼉을 한 번 치고는 마치 풍성한 잔치를 즐기는 듯 기도하는 두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미소를 지었다.

나사로는 그 남자의 얼굴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올리브색 피부에 뺨뺨한 검은 수염, 검은 눈, 그리고 매부리코처럼 튀어나온 코였다. 나사로에게 그 남자의 얼굴은 낯설어 보였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눈 사이 간격— 그렇게 살집 있어 보이는 얼굴 에 좁게 벌어진 눈들은 마치 외눈박이 거인처럼 섬뜩한 시선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남자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미소는 굳은 이마 아래 찡그린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자를 들어 올려 탁자 위에 세로로 눕혔다. 그는 여자의 팔을 옆에 받쳐 놓고 탁자 중앙에 오도록 자세를 잡아주었다. 마치 실물 크기의 인형을 다루듯 말이다. 라자로가 그녀를 내려다보자, 그녀는 깊은 절망에 찬 울부짖음을 담은 듯한 커다란 푸른 눈으로 그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서 전해지는 공포는

그녀의 눈은 편안한 얼굴 표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 혐오감과 자기만족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듯했고, 그 눈빛 에는 고통스러운 기색과 입가에 은은하게 걸린 비웃음이 역력했다 . 그녀는 마치 천국의 심연까지 꿰뚫어 보는 듯,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남자가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을 때조차도, 그의 눈은 마치 천국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 남자의 손길은 마치 병상에 누워 있는 딸을 돌보는 어머니 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움직였다. 그는 옷 한 올 한 올을 꼼꼼하게 접어 탁자에 묶인 시신 옆에 쌓아 올렸다.

나사로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으려 서까래를 붙잡았다. 그는 손 으로 입을 가리고 갑자기 밀려오는 메스꺼움에 얼굴을 찡그렸다 . 파리와 곤충들이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서 나사로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 가래 섞인 꾸르륵거리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었다. 그리고 남자의 통통한 손가락이 마지막 옷자락을 우아하게 다듬고 접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사로의 눈에는 그 손가락이 노련한 어부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다. 통통하고 부드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손가락, 아니 나사로 자신의 손가락처럼 길고 가늘고 피부가 두꺼우니 말이다.

남자는 시체의 옷과 신발을 뒷벽으로 옮겨 작업대 아래, 다른 사람의 덮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곳에 놓았다. 그는 나사로에게 등을 돌린 채 그곳에 서서 카운터 위의 물건들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남자가 어깨 너머로 나사로를 부르며 말했다. "나는 어부다. 모든 사람을 낚는 어부지! 너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 안 돼! 일단 이 어시장에 들어오면 아무도 나갈 수 없어! 단 한 사람도!"

나사로는 숨을 멈췄다.

어부는 말을 이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십니까?"

나사로가 대답을 거부하자, 그 남자는 가죽 벗기는 칼끝으로 작업대 윗부분을 찌르며 소리쳤다. "네가 계속 침묵하는 걸 보니, 네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군." 그렇게 믿는구나. 하지만 내가 너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주겠다. 아무도 내게서 숨을 수 없다. 너조차도. 나는 모든 것을 본다. 특히 악마의 행적을 꿰뚫어 본다!

그러나 어부는 나사로를 쳐다보기를 거부하고 등을 돌린 채 소금 덩어리를 굽어모아 고운 소금 알갱이로 부수었다. 그는 그 고운 소금을 손바닥에 쓸어 담아 팔과 목에 문지르며 마치 목욕을 하듯 몸을 씻었다. 그러다 갑자기 과장된 숨 막힘 소리를 내며 목에서 가래를 뱉어내어 신발 옆에 내뱉었다.

바퀴벌레들이 도망쳤다. "딱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어부는 뒤돌아 소리치며 무언가를 움켜쥐었다. 탁자 위에 놓인 칼을 집어 들며 "날 믿지 못하겠나, 악마의 자식아? 대답해 봐!"

땀 뚫린 셔츠에 완전히 노출된 느낌에 점점 더 어지러워지자, 라자로는 결국 포기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이 하늘을 나는 기독교인으로 소개되는 모습을 떠올렸다.

남자는 작업대에서 뛰쳐나와 칼을 휘두르며 알몸의 시체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대답해, 마녀!" 그는 죽은 여자의 머리를 흔들고 칼날을 목에 대고 소리쳤다. "이제 내 말을 믿겠나?"

나사로는 들보를 꼭 움켜쥐고 다리 사이로 아래 펼쳐진 기이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아! 이제야 자백하는군!" 어부는 시체를 향해 외쳤다. "모든 걸 잃고, 더 이상 방어할 수단이 없을 때 말이야!" 그러고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그는 다시 한 번 손을 들어 올렸다. 깊은 한숨을 쉬고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서 말했다. "편히 쉬세요." "내 사랑." 그는 그녀의 눈 흰자위를 훑으며 더욱 위로했고, 라자로는 아직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희미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눈물 흘릴 필요 없어. 마녀는 울면 안 돼. 예쁜 작은 꽃들만 슬픔을 느끼거든."

나사로는 어부가 작업대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남자는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마치 죽은 여인이 말하지 않은 질문에 답하듯, 숫돌에 칼날을 부딪치며 뒤돌아 소리쳤다. "그래,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죠." "왜?"

나사로의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게으른 파리들이 그의 얼굴에 달라붙었다.

남자는 혼자 낄낄거리며 큰 소리로 덧붙였다. "절대 너랑은 안 돼, 계집애. 넌 날 유혹할 수 없어. 네 계략을 알아챘지. 꽃인 척 하면서 악의 씨앗을 숨기려는 속셈이군."

라자루스는 기침을 억지로 참았다. 그는 건물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때서야 그는 속이 메스꺼운 이유를 깨달았다. 햇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장에 쌓여 그의 숨을 앗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서까래 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바깥 문턱 쪽을 바라보았지만, 아직 바깥에는 치명적인 햇빛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어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낮고 높은 문을 훑어본 후 다시 어부의 넓은 뒷모습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침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점점 더 심해졌다. 그에게는 정면으로 맞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여 나무 기둥에 손을 단단히 짚고는 조심스럽게 죽은 여자 위로 몸을 낮췄다. 그런 다음 탁자 위에 서서 그녀의 양옆에 발을 디뎠다. 그는 여자 위로 쭈그리고 앉은 자세에서도 어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숨을 참고 온몸의 힘을 모아 자세를 비틀고 무게중심을 옮겨 마침내 그의 부츠가 바닥에 조용히 닿았다.

그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 쇠창살이 있는 바깥 문으로 향하다가, 환하게 빛나는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기 전에, 손을 들어 자신을 억제하기 전에, 그는 기침을 했다.

나사로와 어부는 몸을 돌려 서로 마주 보았다. 그러자 깜짝 놀란 어부는 칼이 돌바닥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 북쪽 벽에 부딪혀 멈춰 서자 그는 칼을 놓쳐버렸다. 나사로는 칼에서 시선을 떼고 날개를 펼친 후 어부를 향해 쉿 소리를 냈다.

“저리 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남쪽 벽으로 물러섰다. 나사로는 자신과 날개를 추스르고 그가 있던 문을 지키며 남아 있었다. 아직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세요." "아, 그러죠 —바로 여기—원하신다면 여기요."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옆에는 돌담이 놓여 있었다. 바퀴벌레들이 도망쳤다. 그는 슬쩍 건물 건너편에 놓인 가죽 벗기는 칼날을 바라보았다.

라자로의 시선이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대로 놔둬!" 두 사람은 탁자와 그 위에 놓인 시체를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쳤다. "그 자리에 앉아." 그러나 남자가 여전히 서 있자, 라자로는 덧붙였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날 것이다. 당신이 앉으면 나도 앉겠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쪼그려 앉았고, 시체와 정육점 탁자 아래를 지나치는 순간, 서로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그리고 그들은 발꿈치를 들고 앉아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침내 나사로는 희미해져 가는 불빛을 내뿜는 뒤쪽 문턱을 다시 한번 살폈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까?” 어부가 물었다.

“나는 곧 당신들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나사로가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도 모르지. 곧 밤이 될 테니까." 그는 신음하며 자세를 고쳐 앉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들어 팔을 엮었다. "달힌 문을 어떻게 통과했지? 저 마녀가 널 불러낸 건가? 넌 대체 뭐야? 악마 같은 건가?"

“나는 지붕 서까래 위에 자리를 잡았을 뿐이야. 나는 악마가 아니야.”

“아! 물론 당신이 악마일 리는 없겠지만, 날개와 이빨을 보니 의심스럽군요.” 남자는 목을 가다듬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마드입니다. 저는 아마드 가스통이고, 바라바스 가스통의 아들입니다. 실례지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알려진 사람인가요?

“나사로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죠.” 그는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그 남자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영광은 내게 돌아왔네, 나사로. 나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야."

라자로는 얇은 리턴 활을 휘었다.

호기심 많은 어부는 그들 사이에 감도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저는 훌륭한 어부이고, 박식한 서기관이며, 많은 신비에 정통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라면 모를까, 당신의 날개 달린 모습은 내 감성을 몹시 거슬리게 하는군요. 사실, 내가 그 저 평범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었다면 당신을 악마 그 자체라고 맹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 당신은 악마일 리도 없겠죠. 어쩌면 이 우연한 만남을 세상의 또 다른 경이로운 현상, 즉 육신을 가진 날아다니는 인간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군요? 당신은 그저 날아다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면 곧 길을 떠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저는 기독교인이며, 하늘을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곧 떠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어부가 공언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지 않죠. 제가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뜨고 머리 카락을 뒤로 넘기며 마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했다.

그러자 그는 손톱을 내밀어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입술을 오므리고 손가락을 손톱에 대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과장되게 표현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아!"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나사로를 가리켰다. "내가 그것의 이름을 알아냈다!"

"이름?"

"그래요, 당신과의 만남에 대해 제가 지을 시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매혹적인 작품이 될 겁니다." 그는 씩 웃으며 말했다. "온 세상이 그 시에 매료될 거예요."

그는 팔을 천장을 향해 쭉 뻗고 마치 하늘 전체를 향해 말하는 듯 팔을 마구 흔들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제목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날개 달린 악마'가 될 것이다."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라자로가 말했다.

"설마 그럴까요? 보세요, 악마조차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본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신이 악마라고 맹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절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글쎄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쩌면 문제는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장하는 한 하늘을 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대립하는 것이죠."

"나는 악마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 기록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나사로가 꾸짖었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단 하나의 주장이 어떻게 반대되는 백 가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만 옳고 백 명이 틀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신적인 존재입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이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자 하늘을 나는 사람입니다. 악마인 척 하는 악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백 명의 목소리에 맞서 한 명의 목소리를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백 명의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나를 포함해서, 그들이 잘못 추측한다면, 맞습니다."

"아, 훌륭하군요!" 어부는 손뼉을 치며 감탄했다. "당신의 짧은 글 속에 담긴 의미가 정말 놀랍습니다."

방어에 나서신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서 싸우셨습니다!
나사로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청하신 대로 앉아 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왜 그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는 시체를 가리켰다.

"오, 마녀 말이지."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다 똑같아, 유혹만 할 뿐이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악한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마라.

"네가 그녀를 죽였어?"

남자는 껄껄 웃었다. "마녀 사냥꾼은 마녀를 죽이는 법이지, 친구.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당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마녀에 대한 성전(聖戰)에 대해 들어보셨겠죠? 그는 두 사람 사이를 가리키며 더 물었다. "내가 나서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당신이요?"

"당신은 교황청을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당신에게 여성을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마녀, 마술사, 노파,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자들은 여자가 아니다. 나는 여자 와 아이들을 죽이지 않는다."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분 좋은 놀라움을 가장했다. "오? 그럼 그 이야기를 꼭 들려줘."

"네가 그녀에게 속삭이기 전에, 그녀의 눈에 허를 넣는 걸 봤어." 라자루스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는 건 옷과 신발을 훔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해."

라자로는 어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갑자기, 그의 고함 소리에 돌이 깨지는 듯했다. "날아다니는 자여, 내 누추한 집에 감히 훈계 하려 들지 마라! 자네는 나에게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고결한 의무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녀들의 교활한 수법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그는 옷가지 더미를 흘끗 훑어본 후 가죽 벗기는 칼로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라자로를 향해 돌아섰다. 라자로는 어부를 더 자극하지 않으려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뚱뚱해 보이는 얼굴을 앞으로 숙였다.

햇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리고 파리 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라자로는 그의 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은 마치 안으로 모여들어 영원히 그를 응시하는 하나의 거대한 구체처럼 보였다. 남자는 으르렁거렸다. "나는 네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와 나는 아주 다르다. 너는 남의 말을 되풀이하며 현명한 척하지만, 나는 진정으로 현명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하고 기록한다."

남자는 긴장을 풀고 비웃었다. "오늘 내 말을 들어라. 오, 영광스러운 라자로여, 나는 너에 대해 의롭고 영원한 시를 기록하겠다."

진리의 빛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지혜의 그림자 속에 숨어버린, 허세 가득한 날아다니는 자여.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너를 벌거벗게 만들겠다.

"세상이 그렇죠." 어부는 윈크하며 꺾꺾 웃더니 덧붙였다. "저는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방법과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까요."

나사로는 이를 악물고 심호흡을 한 후 성경 구절 과 날카로운 비판을 곁들여 반박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의 옷을 탐내어 살인까지 저지른 것 같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신? 신이 누구야? 네 신이라도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직 한 분만 계시나이다."

"그런 대답을 예상했소. 어쨌든 자네는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자네 신앙의 스승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네의 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도록 가르쳤소. 하지만 자네는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기 위해 내가 이미 예상했고, 지혜로운 증언이 나 이성적인 숙고, 혹은 역 질문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나 말의 근거도 제시할 수 없소. 그러니 자네가 내 주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으려 애쓰지 마시오. 특히 자네 자신의 신앙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소." 그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미소를 지었고, 나사로의 대답을 기다렸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한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마도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그들 사이에는 곤충들의 끊임없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타오르는 햇불의 타닥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정적이 흘렀다.

나사로가 문턱 아래 붉은 빛을 다시 확인하려던 순간, 어부가 그를 불렀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어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라자루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에게는 밤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군. 전부 말해 줘."

남자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부모님은 서로 다른 왕국,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사르디니아 해변에서 조개껍데기를 줍다가 발자국이 겹치면서 사랑에 빠지셨어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지만, 비밀리에 결혼해서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고 도전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죠. 그렇게 특별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계절이 지나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그들의 자식이었기에, 부모님은 저에게 두 분의 신앙을 모두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죠.

비록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마치 비슷한 이야기의 두 가지 버전처럼—내가 그 차이점을 의심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도 맹세코 그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님은 제가 남들에게 저의 특이한 신앙이나 부모님의 다른 신앙에 대해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을 강요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았고, 그곳의 현자들과 부족 원로들은 다른 종교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만약 어머니가 원로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 때문에,

장로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한 명이 아니라 일곱 명의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부는 나사로의 얼굴을 살폈다.

“일곱 명이라고요?” 라자루스는 여전히 빛나는 문턱을 다시 한번 훑으며 일부러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서 신이 그렇게 많은 거죠?”

어부는 손가락을 튕기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마치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데 자뉘 처럼, 라자로는 그 남자가 자랑할 것을, 그런 질문을 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게다가, 그 남자가 밤이 될 때까지 자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예감까지 들었다.

“정말이지. 나는 총 일곱 신을 섬겼지.” 남자는 부츠 끝을 들어 올리며 기어오는 딱정벌레 한 마리를 바라보았다. “현명하신 아버지는 여섯 신에게 기도하셨고, 자애로우신 어머니는 단 한 신에게만 기도하셨어. 어머니의 신은 바로 당신이었는데, 당신은 지금 그 신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고 있군.” 남자가 부츠를 내리자 벌레가 툭 하고 터졌다. 그는 나사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보시다시피, 나는 당신의 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내게는 단 한 신만이 있었을 뿐이야.”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라자로가 말했다. “이미 그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기로 선택하셨으니, 제가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군요.” 라자로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라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당신이 그분께 등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까?

어부는 나사로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크게 숨이 막혀 헛기침을 하며 마치 가래를 뱉는 순간을 과장하려는 듯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가래를 옆에 뱉었다.

부츠를 신고 라자루스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제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헛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먼저 몇 마디 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자로가 말했다.

그는 다시 목을 가다듬고 시선을 부드럽게 했다. "네, 뭐, 아버지가 몰래 다른 여자들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끝났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너무나 많았지. 어머니는 그분만큼이나 열정적이셨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걱정에 휩싸여 그분이 잠든 사이에 칼을 빼앗으셨지. 그런데 그분은 잠에서 깨어나, 거의 잠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침입자로 착각하고 어머니를 죽였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지. 어머니는 그분을 해치려 하지 않으셨어.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분을 숭배하셨으니까.”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자로는 문턱을 힐끗 보며 대답했다.

“아, 그러시리라 짐작은 합니다.” 남자는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 나는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따뜻한 햇살과 지저귀는 새소리, 푸른 계곡의 자욱한 안개, 그리고 수많은 신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기도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죠. 바로 옆방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울고 계신 아버지가 누워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는 라자로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네, 당신이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친절한 분."

나사로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을 뿐이다.

그 남자는 말을 이었다. “평생 유일한 진정한 사랑을 잃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맹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어머니의 신앙, 즉 어머니와 함께 믿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요구에 불만을 품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울부짖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졌고, 일곱 신과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일곱 신조차도 부부의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다시 한번 나사로의 얼굴을 살폈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곱."

“일곱!” 남자는 손가락을 일곱 개나 펼쳐 보이며 외쳤다. 그러고는 손뼉을 한 번 치고는 씩 웃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 두 분을 각각 관습대로 장례를 치르고, 조국을 떠나기 전에 모래밭에 아홉 개의 무덤을 남겼지.”

“아흡?” 라자로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부는 비웃으며 말했다. "정확히 그만큼이지. 내가 네 신을 저 줄에 묻었으니까." 무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사로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니,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기억이 아주 예리해서 짐작하건대, 그의 무덤은 세 번째였을 것이다. 그리고 말은 어찌겠는가? 나는 불멸의 시인이다. 말 속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영광스러운 나사로, 하늘을 나는 자이다.” 그는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손가락을 튕기며 쉿 소리를 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귀 기울이는 한, 나는 계속해서 말을 속삭이며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나는 바로 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잠시뿐이었고, 어부의 발작으로 곧 깨졌다.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마룻바닥을 손바닥으로 연신 내리치며 북소리처럼 두드리며 외쳤다. "자, 이제 말해 보시오, 날아다니는 사람 나사로여! 어느 것이 참된 믿음이었고 어느 것이 거짓이었소? 어서 대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에게 대답하십시오!"

시인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시인 없이 죽어버릴 것이다!

나사로가 일어섰다. "그만해!"

남자는 웃으며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역시 내 예상대로군! 이 세상에서 네 자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생각하는 것조차 괴로운가 보군." 그는 벽에 기대어 여전히 킁킁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 그들이 옳기를 바라는 것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 느끼는 슬픔이란!

"오, 통찰력과 이성이 맹목적인 믿음에 가져다주는 의심이여." 그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사로가 말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 속에 담긴 불안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라자로는 다시 쪼그리고 앉아 그 남자의 주름진 얼굴과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거짓 신앙과 그 신앙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만이 유일한 참된 신앙임을 압니다.”

“거짓말이야!” 남자가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불붙은 파리들이 날아다녔다. 그는 황급히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보며 앞뒤로 몸을 흔들었다. 마치 외워서 말하는 듯한 단어들 중얼거렸다. “신은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천사도 성인도 없어.”

"악마, 혹은 마귀." 그는 몸을 연신 흔들며 하늘을 응시했고, 마치 생각 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어. 어떤 증거도 , 단서조차 없어 ."

"거짓말입니다." 나사로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 남자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렸다. "성경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이 부인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남자는 몸을 가만히 흔들었고, 나사로는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마치 제멋대로이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서, 침착하고 고상한 태도를 지닌 사람의 얼굴로 변한 것 같았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부리처럼 생긴 코로 나사로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래전에 죽은 광신적인 서기관들이 후손 모두에게 자신들의 말을 하나의 말씀, 즉 그들이 생각했던 신과 믿음의 유일한 말씀 으로 들려주고 싶어서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인간은 신과 악마를 기록하는 존재일 뿐이다. 신과 악마는 스스로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하지."

"놀랄 일도 아니군." 라자로는 투덜거리며 문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부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제가 여러 계절 동안 다양한 땅과 사람들을 여행하면서 당신의 경전과 같은 글들을 많이 접했는데 , 그 모든 글들이 신성한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신성한 칙령도 보았습니다. 양피지, 토기, 돌과 나무로 된 명판, 나무줄기에 새겨진 조각,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 신의 계시로 고통 없이 새겨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배에 있는 흉터와 표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손뼉을 쳤다. "그렇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겠지요?"

"저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자로가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성한 메시지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그 메시지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제시했다는 것 입니다. 즉, 그 신성한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진실이며, 그와 반대되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경전은 왜 다른 '신성한 메시지'들과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신앙과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신앙과 신들만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과연 '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또 하나의 '신의 메시지'에 그치지 않을까요?

수많은 진실 중 하나라고요? 말해 보시죠. 그 안에 어떤 더 큰 진실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내 말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는 씩 웃으며 윙크했다.

마침내 나사로가 그를 꾸짖었다. "사실 당신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부인이 당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은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으로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해왔습니다." 어부가 반박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심지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탁자 위의 시체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는 악한 사람이야. 선한 척할 뿐이지. 네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부재뿐이야."

나사로는 어부의 이마를 기어가는 파리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파리는 그의 눈썹 바로 사이에 멈췄다.

그 남자는 이마에 붙은 벌레를 알아채지 못한 듯 결결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버림으로써 손해 볼 건 당신뿐일 겁니다." 그는 손바닥을 내밀고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보시다시피, 진실의 책임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다. 나는 신이 실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는 활짝 웃었고, 라자로는 파리가 그의 얼굴 위로 기어오르다가 수염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나님은 실재하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 은 존재하시고, 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나사로는 말했다.

"정말요? 그렇다고요?" 남자가 그에게 따져 물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의 신이 그 배후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문 말입니다." 남자는 낮고 높은 문을 가리키며 물었다.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어부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눈썹을 찌푸렸다. "당신의 신이 문 뒤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진실의 책임이 내게 있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까?"

"어쩌면 당신은 누가 그 짐을 져야 하는지 찾느라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턱에 손가락을 대고 수염에 붙어 있던 파리를 쫓아내며 말했다. "제가 문을 열지도 않았고 제 주장의 진실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저를 믿으셨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저는 누군가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 문 뒤에도 계시고, 이 벽 돌 안에도, 지붕 서까래 안에도 계십니다.

그는 얼굴에서 파리를 쳐내고 시체를 향해 손가락을 쿡 찌르며 말했다. "그는 심지어 안에도 있어." 그녀의."

나사로가 계속 말하자 그 남자는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이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산과 강, 해와 달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만드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문을 닫고 편히 쉬십시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당신이 제시하는 유일한 증거는 내 생선 가게 가 있다는 것, 마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는 두 손을 허공에 내렸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당신의 가게가 라는 것을 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이 실재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이상입니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바란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요. 마녀의 눈이나 달의 얼굴을 통해 그분을 제게 드러내 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라자로는 어부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생선 창고 바닥과 가족 벗기는 칼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네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기를 바란다." 라자로가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이것에 답해 보시오. 만약 돌도, 나무도, 마녀도, 산도, 심지어 태양조차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나요?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이기 때문에 신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턱을 굳게 다물고 라자로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 남자는 “어찌하여 위대한 창조주를 단지 신이나 왕, 혹은 아버지 라고 부르며 그분을 깎아내리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위대한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 ‘주’, ‘신들의 공작’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의 신이나 악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나 고귀한 칭호가 필요 없는 위대한 창조주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분을 ‘위대한 창조주’ 라고 부름으로써 또 다른 이름을 붙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는 한숨을 쉬고는 뾰뚱한 손가락으로 다리를 툭툭 두드리며 나사로에게 훈계를 시작했다. “내가 여행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 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들은 모두 지금 자네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자신들의 신이 위대한 창조주라고 공언했지. 하지만 위대한 창조주는 인간의 신이 아니란다. 위대한 창조주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경탄하고 신을 믿도록 만드셨을 뿐이야. 자네가 원한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오, 스스로를 나사로라 칭하는 영광스러운 날아다니는 자네가.”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나는 신성모독에 맞서 그분을 변호할 필요가 없다.”

어부는 얼굴을 찌푸리다가 껄껄 웃었다. "신은 진리라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그저 그런 말뿐인가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그는 크게 웃었다. "글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나 자기 신을 변호하면서 자기 신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어떤 사람이 거짓 신을 믿는다고 고백할 만큼 어리석겠습니까?" 그는 껄껄 웃었다.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도 많은 말을 했네요. 당신의 신을 변호하는 데 아무런 의미 있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단순한 주장조차 제대로 변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으니까요."

“저는 그분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진리를 전할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나사로가 말했다.

“오?” 남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 보시오. 위대한 창조주는 선하신가, 악하신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언급한다면, 그분은 선하십니다.”

“거짓말이야! 위대한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 모든 것이 위대한 창조주 에게서 나왔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꽃부터 마녀까지 모든 것이 다! 반쪽짜리 진실만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지? 게다가 너 악은 오직 악마와 마귀에게서만 나온다고 믿는 것 같은, 그렇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런 악한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 자신이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를 지어내시오!”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라고 나사로가 말했다.

“왜 당신은 내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당신은 그것을 일축하는 겁니까?”

어부는 어깨를 으쓱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모든 것을 단숨에 말씀드린다면, 당신은 손짓 한 번으로 모든 문제를 일축해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잘못된 생각의 여러 측면을 날카롭게 짚어보며 그토록 오랜 시간과 노력을 쏟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말을 믿지 않습니다' 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와 같은 시시하고 황설수설하는 반박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나의 영광스러운 나사로 고구, 이 반 고구의 아들이시여?"

라자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아니라고? 네 개처럼 뾰족한 입은 침묵을 갈구하지만, 네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군. 네 눈 속에는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호기심과, 너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아마도 당신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일지도 모르죠, 나의 영광스러운 아마드 가스통, 당신은 바라바스 가스통의 아들이시여?"

어부는 웃으며 나사로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재치가 좋으시군요!"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비슷한 수준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도,

당신이 볼 수 없는 당신의 신앙의 근본적인 잘못과 관련하여; 그리고 나는

"네 아직 굶주린 눈빛 속에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남자가 말을 이어가자 나사로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날개 달린 자여, 내가 지혜롭고 기꺼이 너에게 인간과 그들의 신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겠다."

“꼭 그래야 해?” 라자로는 투덜거리며 뒤에 있는 문을 잠깐 살펴보고, 어부 역시 잃어버린 칼을 다시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단언했다. “자녀가 부모 곁에서 위로를 받듯이, 부모도 신에게서 위안을 얻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도와 확신, 자비를 구하듯, 부모도 신에게 인도와 보호, 은혜를 간구합니다. 부모도 어렸을 때는 순진함과 두려움, 어리석음을 겪었으니까요.

제 말씀을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라자로는 그 의미를 어렵듯이 파악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도 환상적인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어부를 응시했다. 어부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냉철한 성찰을 보여주며, 바로 직전까지 발가벗기고 눈을 핏빛이던 시체 뒤에서 그에게 훈계를 늘어놓았다.

“네 침묵으로 나는 너를 모아 나를 모으려 한다.” 어부는 나사로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이제 나는 너에게 더욱 큰 진실을 알려주겠다. 너는 네 믿음 때문에 분명히 이 진실을 부인하겠지만 말이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위대한 창조주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친숙한 얼굴도 없고, 우리에게 확신과 보호를 줄 아버지의 손길도 없으며, 우리를 위로하고 고통을 치유할 어머니의 언어도 없다.” 그는 나사로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다. “이제 왜 신들에 관한 책과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겠느냐?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신들을 기록하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집단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경전 속에서, 노래하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신들에게 얼굴과 형체와 이름을 부여한다. 그리고 네 신을 믿는 자들처럼, 그들은 신을 ‘아버지, 주님, 왕’이라 부르고 ‘진노, 자비, 슬픔, 은혜’와 같은 속성을 부여한다. 마치 그들이 신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것처럼 말이다.” 어부는 비웃으며 말했다. “자, 영광스러운 나사로여, 내게 대답해 보아라. 만약 돼지들이 자기 자신과 넓은 세상에 대해 경탄할 수 있다면, 만약 그들이 인간만큼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들도 자기 형상대로 만든 신들을 기록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사로는 “만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돼지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만약 당신이 이 능력 있는 돼지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당신처럼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비꼬는 투로 물었다.

나사로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믿음과 이해력으로 볼 때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부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손을 흔들며 그를 내쫓았다. "오, 하지만 나도 자네처럼 내 능력과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어리석고 맹목적인 확신에 가득 차 있지. 냉혹 하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외면하려는 거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두가 그래. 자네처럼 말이야. 더 나은 세상을 믿고, 자애로운 신이 삶의 온갖 고통을 달래줄 거라고 믿는 거지." 남자는 주저앉아 고개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여전히 잔혹한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형체도 없고 얼굴도 없는 위대한 창조주에게 친숙한 얼굴을 씌우려는 절박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들은 위대한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직시하기를 거부합니다.” 라자로가 고개를 가우뚱하자 그 남자는 눈을 가리고 흐느끼는 듯했다.

나사로는 남자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크게 웃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참 가련한 짐승들이로군!" 그가 외쳤다. "그들의 신은 위대한 창조주의 형상과는 전혀 다른, 보잘것없는 인형 머리 형상에 불과하군!"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위대한 창조주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대한 창조주가 여자에게 씨를 뿌려 인간 신을 낳았다고 맹세까지 하는 자들이 많소!" 그는 낄낄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어리석은 생각이자— 그들이 숭배하고 죽인 인간 신이라니.” 그의 표정이 갑자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변했다. 그는 나사로를 유심히 살피며 턱수염을 긁적였다. “정말 그런 어리석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더니 윙크를 하고 씩 웃었다.

소용돌이치는 햇불의 불꽃 아래, 그리고 남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라자로는 어쩌면 그는 어머니의 눈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불타오르듯 차갑고 냉혹한 시선, 그 안에 타오르는 냉혹한 열정을 발견했다. 그는 어부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반박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남자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한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말은 정말 내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군요! 정말 잘 준비했군요!" 그는 조롱하듯 외쳤다. "너무나 예상치 못했고, 너무나 신선하게 말했군요! 당신의 지혜는 "

남자가 팔을 힘없이 옆으로 떨어뜨리고는 라자로에게 변비 걸린 듯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덧 붙이자, 라자로는 자세를 고쳐 잡고 가죽 벗기는 칼을 흘끗 보았다. "그 말을 누구에게서 빌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돌아가서 그 말이 헛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전해 주시오."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나사로를 가리켰다. "게다가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는 두 배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첫째, 그 말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고, 둘째, 당신에게도 똑같이 주제넘게 설교하는 바보처럼 행동하도록 당신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부는 몸을 웅크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뻗뻗하게 앉아 나사로를 응시했다.

라자로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체질 변화를 생각했다. 그는 평생 동안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뜨겁게 달구는 듯한 이처럼 강렬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세 번밖에 없었다. 그는 대장이 아버지를 죽였을 때 눈부신 분노를 떠올렸다. 그의 눈동자는 수축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벌거벗은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의 신앙과 날개 달린 괴물로 그를 죽이려는 시도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휴곤의 병사들이 그를 날개 달린 괴물이라고 속삭이는 말을 떠올리며 라자루스는 턱을 굳게 다물었다. 땀방울이 그의 굳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라자루스는 눈앞에 있는, 누가 봐도 유능하지만 괴물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신앙의 근간을 조롱하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는 감히 자신의 안락함의 초석을 흔들어 놓은 남자,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이 아버지와는 많이 닮았고 괴물 같은 어머니와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확신마저 무너뜨린 남자를 노려보았다.

'어머니와는 전혀 달라. 진정한 괴물은 아니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한숨을 쉬고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안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 어쩌면 거짓말을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부는 여전히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디 제가 명예로운 사람이고, 박식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 하나하나, 모든 단어와 구절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런 능력을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갖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나사로이자 밤하늘을 나는 검은 옷을 입은 크리스천이시여."

당신도 필경사 업무도 하시나요?

“저는 필경사입니다.” 라자로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 하나하나의 모든 단어를 다 안다면, 열왕기하 35장(총 17절)을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부는 얼굴을 찡그리며 입술을 비틀었다. "정말 영리하군. 내 실력을 시험할 구절로 그 구절을 고르다니. 하지만, 네 도전을 받아들이고 내 실력을 기대하겠어."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그 구절을 줄줄이 읊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제물도 드리지 말라." 그 남자는 손뼉을 한 번 치고는 덧붙였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직 위대한 창조주만을 믿으며 당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잠언 1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읽는지 말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그것을 소리 내어 회상하며 말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는가? 명철이 부르지 않는가?” 그녀의 목소리를 들려주겠습니까?

“아!” 남자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외쳤다. “아마 당신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라자로의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굳이 제 능력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셨겠죠? 하지만 당신께서 계속 물어보시니, 저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드 가스통입니다. 어부이자 시인이며, 바라바스 가스통의 아들이죠."

그 남자는 첫 번째 눈썹과 똑같이 두 번째 눈썹을 치켜올렸다. "당신도 그런 재능, 즉 흡잡을 데 없는 기억력을 갖고 있군요?"

"당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라면, 저는 제가 보고 듣는 것을 기억합니다." 라고 라자로가 말했다.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나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라자로가 차갑게 대답하며 덧붙였다. “나는 영원히 살지 않았는데, 너는 영원히 살았느냐?”

남자는 이마를 탁 치며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 평생 동안 나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날개까지 달렸어! 정말 놀랍군! "위대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숭고한 계획이로구나!" 그는 나사로를 향해 마치 기뻐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어쩌면 너와 나는 내가 처음 생각 했던 것보다 더 닮았을지도 모르겠구나!"

라자루스는 그들 사이에 놓인 탁자 위의 시체를 흘끗 바라보았다. "우리는 전혀 닮지 않았군."

"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손을 흔들며 주장했다. "우리 둘은 같은 본성을 지녔습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이 은사와 저주를 받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죠." 그는 몸을 뒤로 기대고 눈을 가늘게 뜨고 나사로에게 물었다. "당신은 그 성경 구절들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신이 쓴 글이 아닙니다."라고 나сар가 대답했다.

"나도 그 구절들을 여러 번 읽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미 읽은 것을 왜 다시 읽으려는 겁니까? 혹시 당신의 기억이 당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나사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 말씀에 통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라자로는 주먹을 바닥에 짚고 이렇게 결론지었다. "완벽한 기억이라 할지라도 기억해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남자는 벽에 기대앉아 씩 웃으며 손가락 관절을 꺾기 시작했다. "기억이 곧 이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이해' 라는 말을 주고받은 기억은 없소."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당신 이 글의 의미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를 이끌고 왔으니, 글의 의미를 측정하는 방법은 글에 쓰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소."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사로를 가리키며 킬킬거렸다. "자네는 경전을 여러 번 읽었다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그랬다고 주장했지. 자, 대답해 보시오. 그 구절에 담겨 있지 않은 말과 생각들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소?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통해 그 의미를 가늠해 본 적이 있소? 단어와 생각의 신중한 선택, 그리고 같은 것을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그 구절들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 본 적이 있소? 아니면 구절들을 읽는 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경전의 전체 의미를 보지 못했던 것이요?"

"나는 너희의 경전을 읽으며 그 안에 없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새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며 빵이나 포도주를 만드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는 말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 나는 읽습니다. 듣기만 할 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건 당신입니다. 나사로, 자네는 성경을 몇 권이나 읽었나?"

"많은."

그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많다고? 그럼 말해 보시오. 이 경전들 중에서 신의 말씀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경전들과는 다른 신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전은 몇 개나 됩니까?"

"나는 당신처럼 여러 신과 관념, 허황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이며, 진리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짓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듯,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기에,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런 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조용히 죽음을 생각해 볼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자로는 문턱의 희미한 불빛을 다시 한번 살피며 물었다.

어부는 킁킁거리며 말을 이었다.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당신의 기기는..."

여러분의 신성한 경전이 바로 그것이고, 여러분의 수단은 그 경전에 기록된 규칙들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접해온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공통된 이해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신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신성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들 안에는 기록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은 종교와 민족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그 유사점을 발견했고, 그것들은 그다지 특별할 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규칙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라자로는 얼굴에 붙은 파리를 쳐내고 아마드를 내보낸 후, 바닥에 모여든 바퀴벌레 몇 마리에 시선을 돌렸다. 바퀴벌레들은 머리에 붙어 있는 긴 털 두 가닥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듯 보였다.

그 남자는 말을 이었다. "그 모든 것에 적용되는 단 하나의 규칙은 이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담긴 신성한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규칙을 따른다면, 그는 영원히 행복과 평화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가르침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 영원히 살겠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는 껄껄 웃었다. "뭐라고요?"

다른 신성한 기록들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당신의 경전에 대해서도 무엇을 말해줍니까? 어떤 종교의 기록이든 스스로 신성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라자로는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더 많은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드러내지 않는 바로 그 부분 이 당신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이 목격하고 읽어본 모든 신앙들 중에서,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칭찬하는 말을 단 하나라도 찾았습니까? 그는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신앙 중에서, 당신의 살인 행위를 선하거나 의롭다고 선언하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씩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 대답했다. "바로 당신이 아끼는 나사로입니다."

"아니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혼동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 너머를 봐야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는 몸을 뒤로 기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장에 대해 질문 하나를 준비해 두었죠.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만약 당신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신앙의 악마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악을 제거 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악마를 물리치겠습니까?

라자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다. 여자들을 죽여서 옷을 훔치는 짓 말이 지."

"이것도 묻겠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에게 악마의 힘을 훔쳐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악마의 힘을 훔치겠습니까?"

거대한 날아다니는 돼지의 모습이 나사로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악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런 일을 궁금해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믿음 밖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악마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당신의 믿음은 당신 자신에게서 자신을 구원하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나사로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남자가 외쳤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빼앗았다는 사실! 만일 당신들의 경전에 사람들이 당신들의 인간 신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신들의 경전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개념을 언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했을 뿐이며,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사로. 당신은 믿음이 확고해서 나와 이렇게 궁지에 몰렸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어부는 시체를 향해 손을 내밀며 덧붙였다.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몇몇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악을 행하기 위한 악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나사로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죽이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마녀를 처단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꾸짖었다. “만약 그들이 살아남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죽음과 부패, 불길한 징조라는 악의 씨앗을 세상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다.”

라자로는 죽어 있는,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가 마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 겁니까?"

그 남자는 라자로가 그런 질문을 던진 뻔뻔함에 눈에 띄게 놀라며 씩씩거렸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숙련된 대장장이가 어떻게 말을 알아보는가? 대제사장이 어떻게 악의 징조를 알아보는가?” 그는 나사로에게 으르렁거렸다. “내 지혜에 감히 도전하지 마라. 나는 노련하고 뛰어난 마녀 사냥꾼이다. 너는 마녀와 노파들의 술수나 계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라자로가 동의했다.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워 있는 시신을 가리켰다. “이 여자,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마녀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라자로를 노려보더니 인정했다. "마녀 사냥은 정확한 방법이 아니요, 나의 영광스럽고 호기심 많은 날개 달린 자여. 완벽하지 못한 관행에서 절대적인 증거를 얻어낼 수는 없소. 자오의 단순한 신앙과는 달리, 위대한 창조주의 세계는 자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규칙적이고 단순하지 않소. 복잡하고 미묘하며 다양한 회색빛으로 가득 차 있소."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당신의 복잡한 답변은 당신이 분명히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녀가 마녀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 또는 당신이 단순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복잡성'이나 '회색 지대' 같은 말을 꺼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남자를 더욱 압박했다. "당신은 희생자들 중 누구도 마녀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그들의 옷과 신발을 탐낸 후에야 비로소 마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접힌 드레스들이 놓인 작업대를 가리켰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토록 세심하게 드레스들을 배치했겠습니까?"

"거짓말이야!" 어부가 바닥을 탁 치며 소리쳤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야!" 남자는 화가 나서 손가락을 흔들었다. "당신은 눈이 좁아서 낮과 밤만 보고, 해질녘과 새벽은 보지 못하는군!" 당신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사물을 모아들이면서, 그 의미나 옳고 그름의 정도를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는 다시 바닥을 내리쳤다. "어떻게 감히 내 행동의 의미와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지 스쳐 지나가는 증거만으로 내 의도를 안다고 생각하며 나를 판단하려 드는가!"

나사로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눈이 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둔한 눈으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심판 하고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의 옷과 신발을 훔쳐 입고 다닙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마녀에 대해 그토록 아는 것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나는 마녀를 본 적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자루스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죠! 당신은 마녀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저 같은 충실한 마녀 사냥꾼들이 세상을 마녀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건 저 혼자만이 아닙니다. 당신 교회의 성직자들조차도 마녀를 찾아내 없애버림으로써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죠. 그들의 악은 그들이 손대는 모든 곳에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마녀 사냥꾼은 자신의 임무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할 뿐이죠."

라자루스는 작업대와 그 앞에 있는 죽은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만약 마녀 사냥꾼이 세상에서 마녀의 악을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마녀는 손대는 모든 것에 악을 퍼뜨린다면, 어쩌서 마녀 사냥꾼이 마녀의 옷과 신발을 탐낼까요? 그리고 마녀 사냥꾼은 왜..."

마녀들을 처단하려는 그의 투쟁 속에서, 그가 자주 그들에게 손을 댈수록, 그는 더욱 사악해지지 않을까요?

"어찌 옷이랑 신발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좀 들어봐!" 어부가 고향을 질렀다. "옷이랑 신발이라니! 옷이랑 신발이라니! 마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너 대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네 생각밖에 못 보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디 저에게 영광을 안겨주십시오." 남자가 외쳤다.

라자루스는 그 도전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죽은 여자를 가리켰다. 그들에게 "먼저, 이 여성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녀든, 노파든, 마녀든, 어느 이름으로 불리든 다 똑같아." 남자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라자로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옷을 완전히 갖춰 입은 아마도 가스통일 겁니다. 그는 바라바스의 아들이죠." 가스통은 그녀가 이름도 없고 나체이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지?

라자로가 말을 이어가자 남자는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만약 이 여자가 갑자기 숨을 고르고 살아나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하게 된다면, 내가 그녀에게 벌거벗은 채 죽은 마녀가 옷을 입은 채 죽은 마녀보다 뭐가 더 나쁘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내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절대 살아나지 않을 거야! 마녀들은 거짓말만 할 뿐이야!" 남자는 으르렁거리며 황급히 일어섰다. "네놈은 대체 누구냐? 감히 내 생선 가게에 몰래 들어와 마녀들과 함께 나를 조롱하다니!"

나사로는 재빨리 일어서서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그 남자는 가죽 벗기는 칼날에서 눈을 떼어내고 나사로에게 도전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아니라고? 어쩌겠다는 거야? 날 죽이겠다는 거야?" 그는 비웃었다. "네가 지켜야 할 규칙이 생각하는데 — 너는 ~하지 말라 —"

나사로는 날개를 부분적으로 펼치고 입을 벌린 채 나지막이 쉿 소리를 냈다. 그 남자는 그의 치아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남자는 몸을 뒤로 젖히고 벽에 기대었다. "아마 당신에게는 걸모습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지금 저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겁니까?" 그는 그의 손을 눌렀다.

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짚고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들처럼, 너도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으려 드는군." 그는 얼굴을 문지르고 심호흡을 한 후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노련한 마녀 사냥꾼인 나의 영광스러운 라자루스에게는 네 악을 댈 수 없지."

"당신의 생각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그 안에 festering하는 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망치는 건 바로 너야.

"조용히 해!"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눈을 크게 뜨고 벽을 훑어보더니 쏘아붙였다. "들어봐! 들어봐!"

"우리는 무엇에 귀 기울이는 걸까요?"

"shit! 저 소리 좀 들어봐! 문 너머에서 들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낮고 높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또다시, 그들이 주문을 속삭이는군. 몸을 가려라! 서둘러라, 나의 훌륭한 비행사여!" 남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손가락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두드렸다. 하지만 사제라면 십자가를 긋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성호를 그었을지 모르지만, 어부는 이마, 갈비뼈, 눈, 무릎, 허 등 아무렇게나 온몸을 마구 만졌다.

"뭐 하는 거야?" 라자로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나사로야, 너 자신을 지키라! 악, 곧 마녀들의 사악한 계약에 맞서 네 생각을 조심하라! 순수한 생각만 품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면에서부터 파멸할 것이다!"

라자로의 낮고 높은 문과 그가 발견한 어부 사이로 시선을 던졌다.

그는 완전히 자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마치 몸의 튀어나온 부분 하나하나를 만지려고 작정한 듯 입술을 씹어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는데, 그 말은 마치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를 외우는 것 같았다.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남자가 나사로에게 조언했다. 나사로는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손을 벽에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깊고 고르게 숨을 쉬며 라자루스에게 훈계했다. "네 내면의 힘을 모아라. 그것이 마녀 사냥꾼의 방법이다. 악에 맞서 진실의 검처럼, 단련된 금속처럼 네 자신을 단련하라."

라자로는 뒤를 돌아보며 바깥문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문에는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았다. 문턱에 다다르자 마침내 밤이 찾아왔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시체와 낮고 높은 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다가, 벽에 기대어 편안하게 서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우리는 이제 위대한 창조 주의 강력한 갑옷 아래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의 보호라고요?" 라자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낮은 문 쪽으로 귀를 대고는 라자루스에게 귀 기울이라고 으르렁거렸다. "오, 저들은 죽지 않았어, 내 훌륭한 제자야. 죽은 척하는 것뿐이지. 자네가 나처럼 노련한 마녀 사냥꾼이 되려면 마녀들의 온갖 수법을 알아야 해. 이게 자네가 배워야 할 수많은 교훈 중 첫 번째가 될 거야. 자, 잘 들어. 자네 의 그 뛰어난 귀를 이용해서 언데드에 대해 잘 알아두도록 해."

라자로는 귀를 쫓긋 세우고 높은 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오, 정말입니다." 미소 짓는 어부가 주장했다. "저들 이 악의 비밀을 속삭이는 소리를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그는 발가벗은 시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머리가 아직 잘린 저 여자가 바로 우리에게 대항하여 사악한 자매들을 불러낼 수 있는 자입니다."

나사로는 어부를 계속 주시했지만, 그의 마음은 귀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이제 낮고 높은 문 뒤에서 여러 여인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쇠뿔소리 같은 소리 같았다. 그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더욱 집중해서 들었고, 계속되는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희미하게 들리는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서 그는 속삭이는 단어들을 구절처럼, 어쩌면 쇠뿔소리 마녀들과 수다 떠는 노파들 사이의 뒤섞인 대화를 알아챌 수 있었다.

나사로는 얼굴이 붉어진 채 의아한 표정으로 어부를 바라보았는데, 어부는 이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라자로가 갑자기 높은 문 뒤에서 발견 했을지도 모르는 새로운 증거를 즐기는 듯했다. 실제로 라자로의 머릿속에는 최근 기억들이 소용돌이치듯 밀려왔다. 그 남자가 자랑했던 명예, 진실, 지혜, 완벽한 기억력, 재치 있는 언변, 세심한 주의력 등이 떠올랐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숨을 고르고는 그 남자에게 똑바로 말했다. "그건 그게 아니야."

마녀들의 속삭임 같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소리 알아. 그냥 벌레 들이 등지에서 서로 부딪히며 움직이는 소리일 뿐이야."

남자는 미소를 지우고 얼굴을 돌처럼 굳히며 차갑게 말했다. "벌레는 말을 하지 않는다."

“죽은 자도 그렇지 않다.” 라자로가 반박했다. “혹시 당신은 마녀가 있지도 않은데 마녀 를 믿으려고 벌레 소리를 마녀의 말이라고 착각한 건가?”

“마녀는 도처에 있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고!” 남자가 팔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내가 마녀를 믿는다고 해서 마녀가 실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다. “ 네가 마녀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마녀가 실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라자로는 발가벗은 시체를 바라보았다. "당신 말대로 마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어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로운 사람, 마녀 사냥꾼이라면, 마녀가 아닌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낡은 문을 힐끗 쳐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인정했다. "음, 말씀 드렸듯이 마녀사냥은 정확한 게 아니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마녀의 모든 징후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마녀 사냥 같은 일을 한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마녀 사냥꾼으로서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세상의 선량한 사람들로 부터 그들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나요?” 라자로가 물었다.

“우리 말이야,” 그 남자는 으르렁거리듯 말한 후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고, 더 유능하지.”

라자루스는 방을 둘러보았다. "다른 마녀 사냥꾼들은 어디 있지?"

그 남자는 팔을 마구 휘두르며 주위를 둘러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킬킬거렸다.

“우리는 도처에 있습니다, 친구.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항상 숨어 지내죠!” 남자가 외쳤다.

“마녀를 보호해 줄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비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나와 내 마녀들을 찾아낸 겁니다.”

라자루스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갑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시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 달시쿠르 경의 세 탁부가 애원하듯 물었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불빛이 비치지 않는 바깥문의 문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자 그는 팔짱을 끼고 미소 짓는 어부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수년 만에 나를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군.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거야. 난 최고의 마녀 사냥꾼 중 하나니까." 그는 라자루스를 가볍게 손짓하며 내보내고는 말을 이었다. "걱정하지 마. 난 항상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

한날 인간이 나를 발견했는데, 날아다니는 인간에게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저 나를 부를 뿐이다.

"마녀 사냥꾼으로서의 나의 변함없는 헌신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숨을 들이쉬고 씩 웃었다. "그리고 위대한 창조주께서 마침내 내게 보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날아다니는 제자이자 뛰어난 마녀 사냥꾼을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자루스? 날아다니면서 마녀를 태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는 손뼉을 한 번 치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대답을 기다렸다.

"여기엔 마녀가 없어." 라자루스가 말했다. "마녀가 없는 마녀 사냥꾼은 결국 여자를 죽이는 살인자에 지나지 않잖아?"

그 남자는 껄껄 웃으며 "믿음이 부족한 자로군." 이라고 말하고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만약 제가 여기에 마녀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듣는다고 주장하는 벌레 소리만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다면, 그때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라자루스는 크고 낡은 문을 흘끗 바라보았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저 안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문을 가리키며 "바로 저기요. 제가 갈 수 있어요." 라고 덧붙였다.

악행이 영원히 사라진 수많은 노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의 숨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보고 싶으신가요?

세상의 무게와 빨래하는 여인의 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운데, 나사로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낡고 높은 문과 그 옆에 타오르는 햇불, 그리고 주변 공간을 살펴 보았다. 마침내 그는 생선 가게의 빗장이 걸린 바깥 문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다. "당신이 기울인 노력을 보여주 시겠습니까?"

“훌륭하군!” 어부가 외쳤다. “그럼 우리는 마녀 사냥꾼이군!” 그는 조심스럽게 높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라자루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자, 문을 열기 전에 마녀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지.”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라자루스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말을 이었다. “첫째, 마녀들은 육체를 빼앗긴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시들어 버리고 원래 나왔던 더러운 진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죽은 척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에게 악을 엮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훨씬 나중에야 그들이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힘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악화시키려면 마녀 사냥꾼은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살해된 마녀의 머리를 다른 것들과 나란히 놓기 전에. 그리고 모든

마녀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새로운 것 순으로, 바깥쪽에 정확한 순서대로 다음 마녀와 함께 배치되어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만일 그렇게 놓여 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라자루스가 물었다.

어부는 나사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나사로,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마.”

당신이 그들의 순서를 뒤집기도 전에 그들은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를 잡지 못할 겁니다.” 나사로는 단언하며 매달린 사슬을 헤치고 어부를 따라 높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 남자는 잠시 몸을 돌려 그에게 경고했다. “무엇이든 감지되는 것이 있다면 만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병이나 정신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였고, 높은 문에 가까워지자 벽걸이에서 햇불을 꺼내려던 순간, 남자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뭐 하는 거야?” 잠시 동안 두 사람은 햇불 빛 아래서 푸른색과 갈색의 타오르는 눈동자를 마주한 채 서 있었다.

“제가 손전등을 가져올 테니 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라자루스가 대답했다.

남자는 손을 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게 약속해 주시겠어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나사루가 말했다.

“자네는 아직 배울 것이 많네.” 남자는 문고리를 움켜쥐고 라자루스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자, 이제 세상의 사악한 마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지.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악랄한 악이 영원히 봉인되는 모습을 볼 준비가 되었나?”

이 문 말인가요?”

라자루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햇불을 들어 올렸다. "당신이 허락한다면요."
"자, 보십시오." 어부는 천천히 크고 낡은 문을 열며 말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방 안의 검은 내부가 서서히 드러났다. 파리들이 어둠 속에서 쏟아져 나왔고, 햇불 불꽃에 그을린 곤충들이 나사로의 머리와 어깨 위로 떨어졌다.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사로는 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나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어부는 껄껄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마녀 사냥꾼이 되려면 자네보다 훨씬 강한 위장이 필요하겠군. 하지만 우리가 그 위장을 단련해 보자." 그는 라자루스의 팔을 잡고 문턱으로 끌어당기며 불이 켜진 방 안과 그 안에 쌓여 있는 시체들을 가리켰다. "이들은 모두 마녀 들이지." 그는 썩어가는 시체 더미 위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머리가 잘린 채로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군.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는 몸을 돌려 라자루스의 얼굴 앞에서 손가락을 튕겼다. "아! 엔도르에서 악령에 홀려 사울이 직접 찾아다녔던 그 노파를 기억하나? 기억나지 않나? 엔도르의 그 마녀 말이야."

"나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사무엘기 첫 번째 책에서 그녀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바로 당신네 종교 경전에 기록된 그 마녀 말이야."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씩 웃으며 말했다. 그러더니 껄껄 웃으며 가슴을 두드리고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가 잡은 첫 번째 마녀지."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방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난 아직도 그녀의 머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도 당신은 성경을 사람이 쓴 거짓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성경에 기록된 여성의 머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모든 기록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남자는 두 손을 내리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마치 모든 혐의나 의혹에서 그를 제외시키려는 듯 대답했다. "나의 영광스러운 나사로여, 나는 당신의 경전에 쓰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성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다른 어떤 필사본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경전은 풍부한 역사를 담고 있으며, 공통된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박식한 필사자가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 사이에 진실을 섞어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엔도르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면서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믿는 겁니까?”

“내가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제 손에 있습니다.” 남자는 투명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신이시여, 증거로 보여주실 만한 것이 있습니까?”

라자로는 이를 악물고 심호흡을 한 후 그를 꾸짖었다. “엔도르의 여인은 너무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나는 네 말을 믿지 않는다.”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으르렁거리고는 다시 출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기 있지. 자네 말대로 내가 마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군. 내가 직접 보여주었잖아. 그리고 엔도르의 마녀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군.”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자네가 끊임없이 내 능력을 믿지 않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나군.”

“당신이 그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내가 진짜로 그걸 가지고 있으니 당연하지! 마녀는 필멸의 인간처럼 죽지 않아!” 남자가 소리쳤다. “모든 걸 직접 목격해야만 믿는 건가?”

“허락해 주신다면,” 라자루스가 말했다.

“좋습니다.” 어부는 불만을 드러내듯 툭툭거렸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스승이자 노련한 마녀 사냥꾼으로서, 당신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익을 제기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

“내게 빛을 비춰 줘. 길을 볼 수 있게.” 그는 라자루스의 햇불 든 팔을 문간으로 끌어당기며 안으로 들어와 시체 더미를 피해 방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 그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보면, 그녀의 머리가 가장 멀리 있어.”

나사로는 자신의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열린 문 가장자리에 손을 뻗었지만, 잠시 멈췄다.

뻗은 손가락이 회색 나무에 거의 닿을 뻔했다. 그는 멈칫하며 팔을 거두었다.

어부의 목소리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점점 더 희미해지고 멀어져 갔다. “저건 바로 내 어머니인 척했던 마녀의 머리아.”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동안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라자로는 팔을 들어 문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이번에는 문을 닫고 잠그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팔은 문을 닫아주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쉬고 뒤로 물러섰다.

어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말은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묻었을 때, 저는 그 사악한 마녀를 무덤에서 파냈습니다—"

라자로스는 탁자 위에 놓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시체의 멍한 시선을 알아챈 그는 뒷걸음질 치며 집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어두운 문턱을 살펴보니 이미 밤이 된 것이 분명했다. 그때 갑자기 그의 귀가 쫑긋 세워지고 시선이 낮고 높은 문으로 향했다. 문은 저절로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고, 쥐도 없고, 문을 닫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문이 마침내 절반쯤 열렸을 때, 창백한 손가락과 검은 손톱이 문짝의 세로 판자 뒤쪽에서 뻗어 나와 방 안의 촛불에 비쳐 모습을 드러냈다.

루시파엘이 서서히 사라지는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자 그는 몸을 움츠리고 쉿 소리를 냈다. 높고 험악하게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어부를 안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검은 유리 구슬처럼 반짝이는, 깜빡이지 않는 눈으로 나사로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마치 여러 여인의 목소리가 뒤섞인 듯한, 겹겹이 쌓인 목소리로 말했다. "엘조, 당신은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문을 닫을 수 없었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뭐죠, 엘조? 신인가요? 성인인가요? 말해 보세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문 하나조차 닫을 용기가 없는 주제에, 당신은 과연 그 병약한 왕좌의 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의 경건함과 나약함이 결국 당신의 파멸을 초래할 것입니다. 엘조, 당신은 너무나 뻘하고 속마음을 읽기 쉬운 사람입니다. 애초에 왜 애쓰는 겁니까?

어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muffled되었다. "나사로, 뭐 하는 거야? 문을 열어! 맙소사, 놈들이 움직여! 기어 다니고 있어! 당장 열어, 나사로!"
지금! 그들은 머리 없이 서 있다! 안 돼! 나사로!"

루시파엘은 라자루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 앞에는 바퀴벌레 떼가 우르르 기어 다니며 길을 열어주었고, 마룻 바닥이 드러나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녀는 라자루스에게 바짝 다가가 그의 날개를 바깥 문과 여전히 단단히 잠긴 빗장에 기대게 했다. 그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되자, 그녀는 그의 얼굴에 바짝 다가가 훈계하듯 말했다.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모두 내 개입 덕분이야. 널 그 성에서 구해내 길을 열어준 건 바로 나였어. 네가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전적으로 나였지."

내 머리카락으로 자라난 거대한 돼지여. 내 도움이 없었더라면 너는 오래전에 사지가 찢기고 불에 타 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여기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제 네 포로 생활을 끝내준 나에게 완전히 빚을 졌다."

그녀는 나사로의 얼굴에서 물러나 탁자 위에 놓인 알몸의 시신을 살펴보고 말을 이어가려 애썼다. "내가 당신을 구해준 대가로, 당신은 이탈리아의 칸첼로 수도원까지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성당 제단 아래 마지막 문돌이 열리면, 나는 당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당신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어부가 절박한 목소리로 애원하며 말을 끊었다. “라자로, 제발 문만 열어주세요! 원하는 건 뭐든지, 정말 뭐든지! 하느님을 위해서라도!”

그는 울부짖고 신음하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짜증이 난 루시파엘은 몸을 돌려 문에 손톱을 부딪쳤다. 어부의 애원은 고통스럽고 숨 막히는 비명으로 변했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쪽 벽에 부딪히자 생선 가게 안에는 새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그녀는 라자로에게 돌아섰다. "칸첼로에 도착하면 마지막 문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이 저를 위해 그 문석을 열어주세요. 저는 당신이 돌에 새겨진 글귀의 순서와 올바른 암송법을 배우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 거기 근처에도 안 갈 거야.” 그는 문에 더욱 바짝 기대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어서 가! 엘조, 내 인내심을 시험하거나 무례하게 굴지 마!"

문을 열고 지금 당장 하늘로 날아오르세요!

그는 가로대를 들어 올려 문틈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너무 오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라자로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고 몸을 돌려 썩어가는 그곳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어두운 생선 가게 안에서 그는 탁자 위의 시체가 움직여 위로 뻗은 팔을 탁자 가장자리에 걸쳐 자신을 향해 내밀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마치 그에게 손을 뻗는 듯했다. 드리워진 그림자와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사이, 그리고 탁자 불빛의 희미한 깜빡임 아래, 죽은 얼굴은 마치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윙크를 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서둘러!” 루시파엘이 그의 뒤에서 으르렁거렸다.

그는 그 끔찍한 오두막에서 물러났다. 머릿속에는 잊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끔찍한 광경과 소리들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그 기억들이 마음속 벽에 각인되어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이제 그의 팔다리, 날개처럼 그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억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나쁜든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기억 들은 이제 그의 안에 깊이 자리 잡았다. 씻어내거나, 잘라내거나, 뜯어낼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꼴이 될 뿐이었다. 옷에 여전히 배어 있는 썩은 냄새처럼, 그 끔찍한 오두막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어쩌면 그를 변화시킬지도 모른다.

조금 이상.

그는 잡초를 헤치고 별빛 가득한 하늘을 살피더니, 별똥을 남기고 위로 솟구쳐 올랐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솟아오르며 소용돌이치는 파리 떼가 따라왔다. 그는 넓게 펼쳐진 사이프러스 나무 꼭대기 위를 선회한 후 별들 사이로 솟아올랐고, 마침내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오랫동안 연구해 온 수도원 지도의 기억과 철새 특유의 타고난 항해 능력을 바탕으로, 라자로는 자신이 계획한 비행 경로를 레온 만 북쪽 해안선에 정확히 맞췄다. 바람 한 점 없는 서늘한 저녁, 그는 자세를 가다듬고 수평을 유지하며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 움브리아의 칸첼로 수도원을 향해 일정한 항로를 따라 나아갔다. 그곳에서 수도사를 데려와 프랑스 오베르뉴로 돌아와, 번덕스럽고 복수심에 불타는 어리석은 아비뇽 추기경 이 상급 평의회 외경 보관소에서 훤친 원고를 이용해 서둘지만 성공적으로 뚫어버린 가르 디앙 수도원의 문돌을 다시 닫을 생각이었다.

[제17장 끝]



이 문학 작품은 오직 헌정 의 의미 로 창작 되었습니다 .

에드거 앨런 포 (1809-1849)

— 그의 업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



~[고딕노블.org](https://www.gothicnovel.org)~